요즘 제가 필라델피아 성당에 특강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갔었고, 다음 주까지 가는데, 특강을 들으러 100 명 정도 오세요. 제가 강의하러 한인 성당에 종종 가는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당도 30 년이 넘었고, 필라 성당도 50 년이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오시고, 또 한국 성당을 이렇게 지켜주신 여러분들, 또 한인 신자들 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 쉽지 않은 신앙 생활까지 다 하시니,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에서 받으실 상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긴 얘기가 하난 생각이 났어요.

한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을 주문받으러 아무도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셀프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다시 물어 봅니다. 아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다 잘 받는데, 왜 나만 셀프 서비스냐, 내가 이래뵈도 신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말하길, “네, 신부님, 신부님은 살아 생전에 많은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나라에서는 더 대접을 받으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다시 물어요. “아니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대답이, “네 저 분들은 평신도세요. 지상에서 너무나 많은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나라에서는 대접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 봤더니, 저 주방 뒤쪽에 주교님이 계신 거예요. 주교님이 뭐하나 봤더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래요.

“아니, 교황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하고 물었더니, 교황님은 배달 나가셨대요. 세상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평신도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에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을 증거하는 일이고, 신앙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본받는 날입니다. 한국 가톨릭 신앙은 정말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신앙이 시작되었고, 전해졌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가톨릭 신앙을 소개한 사람은 이벽이라는 분이세요. 정약용의 친구로 당시에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천재로 인정받을 정도도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이분은 출세나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순수하게 학문만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혼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 나라에 처음 신앙이 소개되었어요.

당시 사회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집안의 엄청난 반대와 온갖 박해도 무릅쓰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신자들을 차츰 늘려갑니다. 결국, 문중의 반대로 집안 곡간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분의 순수한 학식과 열정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이렇게 가톨릭 신앙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생활하기시작합니다. 성직자도 없이, 선교사도 없이 평신도 학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만든 공동체 였죠.

황일광 시몬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그 분은 당시 가장 낮은 계급인 백정 출신이었대요. 백정 출신이 높은 가문의 양반들과 한자리에 앉아 식사도 하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니, 바로 거기가 천국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았다. 후세에 맞이하게 될 천국은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

처음 박해가 일어난 것은 신유년 1801 년인데, 이때 약 300 명 정도 순교했대요. 이것이 신유 박해입니다. 가장 심했던 박해 병인박해 때, 약 7 년 동안 대략 8,000 명에서 만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시대에 약 100 년 정도 박해가 계속되죠. 그래도 순교자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전해진 거예요.

최초로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였던,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은 박해를 피해 도망치다가 신자들을 버릴 수 없어 되돌아왔대요. 그리고 체포되서 죽습니다. 믿음 하나로 낯선 땅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이셨던, 김대건 신부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죽어도 괜찮다. 오히려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다”고 하시면서, 의연하게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은지 1 년 만에 순교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가끔, 때에 따라서, 혹은 적당한 시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초대는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의 십자가를 용기있고, 훌륭하게 짊어지고 난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 잃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신앙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할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삶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